

02-5255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신자유주의는 우리 모두의 삶을 파괴한다 "

나. 作 成 者 : 공길숙

다. 發 行 處(日) : 열린주장과 대안 (불명)

2. 分 析

가. 概 觀

본 문건은 공길숙이 작성하여 「열린주장과 대안」에 기고한 다국적 연구소의 부소장이면서 프랑스의 세계화 감시대 회장으로 활동하는 수잔 조오지의 『외채 부메랑』(수잔 조지 지음, 당대)에 대한 서평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우리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마약의 원료인 코카 재배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나. 內 容 分 析

1)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우리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수잔 조지가 이 책을 쓴 것은 1991년이지만 10년이 지난 오늘날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 외채에서 비롯하는 이 모든 악순환은 끊어져야 한다.”(125쪽 하단)

2) 마약의 원료인 코카 재배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미를 표출하고 있다.

“많은 외채를 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마약의 원료인 코카를 재배한다. 코카 재배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한 마디로 이율배반이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 공급선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하지만, 코카가 마약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화학약품을 다국적 기업들이 공급하는 것은 묵인하고 있다.”(123쪽 중단)

3. 總 評

본 문건의 내용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우리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 2) 마약의 원료인 코카 재배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미를 표출하고 있다.

본 문건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과 마약의 원료인 코카 재배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위와 같이 단순하게 구호순준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및 반미 내용을 표출하고 있으므로, '문제없음' 범주에 속하는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2 年 8 月 16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5445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전국학생위원회(준) 규정(초안)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전국학생위원회(준)

2. 分 析

1) 개요

0 이 문건은 “전국학생위원회(준)”에서 발행한 6쪽 분량의 유인물로서,

0 전반적인 내용이

-전국학생위원회(준)의 규정(초안)과 본 회의 하반기 사업계획 내용을 담고 있음.

2) 내용 분석

(1) “학생위원회(준)”의 기치아래 연대 단결하여 대선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할 것을 본 회의 하반기 사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지 위해 10개 지역학생회 및 학생위원회(준)을 건설해 나갈 것과 “한총련”을 비롯한 광범위한 학생단체를 총망라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 등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하반기 사업 목표 “학생위원회(준) 기치아래 연대하고 단결하여 대선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하자”...학생위원회(준)가 모든 대학학생위원회와 학생당원들에게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하자...연대와 단결에 기초하여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강화하자...10개 지역학생위원회 및 학생위원회(준)을 반드시 건설하자...학

생위원회 차원의 투쟁사업을 전개하자. (3쪽)

- (2)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와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밝히면서, 현 시기 투쟁 과제로 미군장갑차 살인사건 투쟁, 쌀 시장 전면 개방 반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통일투쟁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예문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중과 함께 투쟁하고 승리하는 정당이다. 전국학생위원회(준)도 민족과 민중의 이익 실현을 위한 공동 투쟁을 모든 것에 앞세우면서 건설될 때...학생위원회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현 시기 우리 당이 전개해야 할 투쟁의 내용과 사안으로는 미군장갑차 투여중생 살인사건과 노동자와 농민들의 투쟁, 그리고 통일투쟁 등이다...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쌀 시장 전면 개방 반대 투쟁을 하반기의 중요투쟁으로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5쪽)

3. 總 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와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임을 밝히면서,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 반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미군장갑차 살인사건 투쟁 등을 본격화해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학생위원회(준)의 하반기 사업 목표로 본 회의 기치아래 연대, 단결하여 대선을 승리로 쟁취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개 지역학생회 및 학생위원회(준)을 건설할 것과 “한총련”을 비롯한 광범위한 학생단체를 망라한 사업의 전개 등을 촉구하고 있는 반정부적 성향의 문건으로 판단된다. < 끝 >.

2002 年 8 月 14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5498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대학 대학생 그리고 학생운동」

나. 作 成 者 : 김인식

다. 發 行 處(日) : 불명

2. 分 析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제목의 글 말고도 “계급과 인간의 역사” 등의 글을 담고 있는 것임. 전반적으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노선과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대체로 마르크스의 노동자계급 계급투쟁론에 입각하고 있다고 추정됨.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우선 첫 번째 글에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학생운동의 방향과 관련하여 “...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 분리는 계급에 따라 이뤄진다. 따라서 민족이나 계급이나 하는 대립구도에서 우리는 이 사회의 근본적인 구분은 계급분리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계급이다. 셋째 노동계급 중심성이다. ... 에릭 홉스봄은 노동계급이 정치적으로 사망했다고 말한다... 이 주장의 결론은 노동계급의 중심성을 포기하고 계급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변화의 가장 핵심적 동력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37면), 이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 이들의 향후 투쟁방향이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에 결합된 학생운동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다분히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됨.

(2) 또한 두 번째 글에서는 계급의 구분에 따른 설명 부분에서 “이처럼 농민이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 의해 착취당한다는 사실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들은 도

시의 중간계급과 다르다. 노동자 운동이 소농의 권익을 옹호할 필요가 바로 이점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고(59면), 자기의 계급 논지를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도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주장함(59면). 이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 마르크스의 계급론에 입각한 계급투쟁론을 주장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3) 또한 세 번째 글에서 마르크스의 著作 「공산당 선언」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론을 현실 설명의 준거틀로 사용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주기적 위기는 자본주의 생애적 특징이다"라고 주장하고(81면), 결론에서 "... 이 지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역사는 재판관이다. 집행자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대담한 주장 또한 여전히 변함없는 진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84면), 이러한 주장 역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수용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이하 여백>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상기 제목의 글 말고도 “계급과 인간의 역사”등 3편의 글을 담고 있는 것임.

전반적으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노선과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대체로 마르크스의 노동자계급 계급투쟁론에 입각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런 점에서 본 문건은 좌익성을 지닌다고 판단됨.

<이하 여백>

2002 年 8 月 21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鑑 定 書

026080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미국은 재판권을 반환하라!

나. 作 成 者 : 김혜경 외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2. 分 析

가) 문건의 개요: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에서 발행하는 유인물로서, 주한미군의 재판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나) 내용 분석:

(1) 본 문건에서는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의 재판권 포기과 반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군당국이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있음. 이와 함께 본 문건에서는 미국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를 개정할 것과 전국 곳곳에 미군기지를 반환할 것, 대북강경정책과 무기강매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반미 의식을 고취하고 있음.

(2) 본 문건에서는 주한미군 범죄문제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를 들어 형사재판권 반환, sofa 개정, 미군기지 반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들이 북한정권의 대남 투쟁전략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단지 반미의식을 고취하고, sofa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을 뿐임.

3. 總 評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에서 발행하는 유인물로서, 본 문건에서는 주한미군 범죄문제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를 들어 형사 재판권 반환, sofa 개정, 미군기지 반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들이 북한정권의 대남 투쟁전략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단지 반미의식을 고취하고, sofa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을 뿐임. 반미·반정부적 차원의 문건으로 판단됨.

2002年 9 月 26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印)

026095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111주년 메이 데이 활동 평가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학생그룹 제 111주년 메이 데이 참가단 "다함께"
 다. 發 行 處(日) : 상동(발행일: 미상)

2. 分 析

가. 개 요

본 문건은 제 111주년 메이 데이를 맞이해, 노동자들이 현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노동자·학생 연대의 메이 데이 전야 행사와 메이 데이 기념 토론회 등에 대한 참가 활동 평가 내용임.

나. 주요 문제내용

- 111주년 메이 데이를 맞이해, 노동자의 시위 상황과 노동자·학생 연대의 메이 데이 전야 행사 상황을 기술(5-8쪽)하고, 111주년 메이 데이에서 살펴본 노동자·학생운동의 정치적 과제는 '현 정부 퇴진 투쟁세력의 결집'라고 제기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 예문 : "이번 메이 데이를 통해 노동자 운동의 잠재력을 힐끗 보았을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운동의 정치적 과제를 우선 살펴보자. 첫째, 운동을 단결시켜야 한다 ... 김대중 정권의 퇴진을 자라는 사람이라면 ...".(14-16쪽)

- 청년학생과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이 현 정부 퇴진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전술을 취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음.

* 예문 : "..... 노동자를 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면 이들이 김대중 정권 퇴진과 신자유주의에 변화와 변혁을 취할 수 있는 전술을 취하도록 도와야 한다".(18쪽)

○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체제이며 자본주의 체제 제거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 예문 : "노동자가 아닌 피억압자들의 억압도 자본주의 체제와 자본가 계급에 의한 것이므로 그들의 자유와 해방 - 이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다 - 은 자본주의 체제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인 노동계급에 달려있다".(20쪽)

3. 總 評

본 문건은 111주년 메이 데이 참가 활동 평가 내용으로써, 111주년 메이 데이에서 살펴본 노동자 · 학생운동의 정치적 과제는 '현 정부 퇴진 투쟁세력의 결집'이라고 제기하는 내용과 청년학생과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이 현 정부 퇴진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전술을 취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기하는 내용,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체제이며 자본주의 체제 제거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자본주의 체제를 억압체제로 비난하고 자본주의 체제 제거는 노동자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산주의 계급투쟁론의 관점에 입각한 용공적 성향의 주장이라 하겠음.

따라서, 본 문건은 용공적 성향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표현물임.
끝.

2002 年 9 月 26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6096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열린 주장과 대안 호외(6)

나. 作 成 者 : 미상

다. 發 行 處(日) : 미상

2. 分 析

가. 개요

본 문건은 현 정부의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은행 합병 추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노조의 파업투쟁을 정당한 투쟁으로 주장하고 김대중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한국민중에 대한 모욕” 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나. 주요 문제내용 분석

- “은행 파업 정당하다”는 주장과 부실 은행 해결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은행 합병 추진에 대하여 “금융을 살리지 못한다”고 정부의 금융부문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 은행원들의 파업투쟁을 정당한 투쟁으로 기술하고 있음.(1쪽, 4쪽)
- 김대중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한국 민중에 대한 모욕”이라고 폄(貶)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2쪽)
- 한국통신 노조의 한국통신민영화에 대한 반대 파업투쟁을 정당한 투쟁으로 투쟁하는 노조원들을 영웅으로 찬양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3쪽)

3. 總 評

본 문건은 정부의 금융부문, 통신부분 구조조정과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은행 및 한국통신 노조의 반대투쟁을 정당한 투쟁으로 주장하는 내용,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영웅으로 찬양하는 내용, 김대중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한국 민중에 대한 모욕”으로 폄하는 내용 등을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반정부적 성향의 표현물로 판단 됨. 끝.

2002 年 9 月 26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6422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자료집을 발간하며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2. 分 析

1) 개요

0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에서 발행한 18쪽 분량의 유인물로서,

0 전반적인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을 비방선동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투쟁전망과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내용 분석

(1) 현 시기 민주노조운동의 진보적 비전과 사회적 영향력이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노동당”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벗이 될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민주노동당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벗이 됩시다...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고 진보정당의 노동자 중심성을 강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3-4쪽)

-이러한 조건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진보적 사회적인 영향력은 강력한 도전에 직

면해 있다. (5쪽)

-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친자본적인 노동정책이라고 비방선동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동참할 것과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쟁취 투쟁 등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이러한 비정규 노동이 확산되는 원인은 법·제도적인 용인...산업구조 변화...친자본적인 노동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런 제도적 환경 속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은 기업복지와 사회복지 모두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끈질긴 인내와 즐기찬 투쟁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새로운 전형을 발견하려는 시도들이다. (10-12쪽)

-특수공용노동자 조직확대를 위한 지역모임을 건설하자...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조직하자...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내자. (15-17쪽)

3. 總 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문건은 현 시기 민주노조운동의 진보적 비전과 사회적 영향력이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친자본적인 노동정책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창출,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선전선동 하고 있는 반정부적 성향의 문건으로 판단된다. < 끝 >.

2002 年 10 月 9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6504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신입당원교육자료집」
- 나. 作 成 者 : 불 명
- 다. 發 行 處(H) : 민주노동당 의정부시 지구당(2002. 9. 14)

2. 分 析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단체가 신입 당원 교육을 위한 자료집으로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서두에서 문답 형식으로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분에서 반자본주의적 정향과 지향성을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음.

나. 문제의 내용 분석

- (1) 우선 “민주노동당은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대한 대답 형식으로 “...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사회와 관련해서는 “...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함(5면).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반자본주의 사회, 즉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 (2) 또한 이어서 민주노동당의 기본이념으로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5면), 다분히 사회주의 지향성을 밝히고 있다고 판단됨.
- (3) 또한 경제 대안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라고 밝혀(6면), 반자본주의 경제체제,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

<이하 여백>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의정부시 지구당이 당원 연수를 실시하면서 그 자료집으로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서두에서 문답 형식으로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분에서 반자본주의적 정향과 지향성을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음.

비록 본 문건에서 구체적인 좌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감지케 함. 이러한 점에서 본 문건은 용공성을 지닌다고 판단됨.

<이하 여백>

2002 年 10 月 17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6506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613 지방선거 승리! 민주노동당과 함께하는 서울대 운동본부
 나. 作 成 者 : 불명(내용상, '민주노동당과 함께하는 서울대 운동본부')
 다. 發 行 處(日) : 상동(불명, 내용상, 2002년 6월초)

2. 分 析

가. 기본성격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의 경우는 작성자와 발행처 不明의 <613 지방선거 승리! 민주노동당과 함께하는 서울대 운동본부>라는 제목하의 문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목에서 나타난 '민주노동당과 함께하는 서울대 운동본부'라는 단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의 경우는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진보를 위장한 階級矛盾에 의한 계투 변혁전제의 혁명투쟁을 신념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의 투쟁이념 실천 관련의 문건이다.

전체에 걸쳐서 분명한 체제부정의 계급모순에 의한 공산혁명투쟁의 기본원칙과 세 부적 실천을 전제하는 내용이 방대한 분량에 의해서 문건의 전체에 게재되어 있다.

결과로서 민주노동당과 함께하는 서울대 운동본부의 경우는 '민주노동당' 本質의 체제부정의 계급투쟁의 이념에 입각하여,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의 階級矛盾에 의한 공산혁명투쟁 전제의 변혁투쟁의 실천과 승리를 전제하는 정책 실시까지를 언급하고 있다.

나. 세부분석

1) 자신들이 추구하는 進歩政黨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적으로 무수한 진보정당이 좌파임을 자임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본가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굴종하여, 신자주유주의의 전도사임을 자처하게 한 현실의 상황에서 정당정치에 회의감을 들게 하기까지 한다."(p.2의 중앙) 라고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쟁취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른바 민주노동당 서울대 운동본부의 진보정당의 의미와 해석 그리고 향후 추진의 방향에 대한 언급인바, 이는 信念的인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체제부정의 투쟁체에 대한 주장 정당화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p.2의 <o. intro>의 내용 전체.)

2) 역시 앞서 언급한 내용의 연장선에서의 민주노동당 서울대 운동본부의 진보정당의 의미와 해석 그리고 향후 추진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계급모순에 의한 좌익적 정치정당의 구현에 대해서 언급하고있다.

관련해서는 改革的이라는 민주당의 '노무현' 도 "자본주의 중심의 시장질서를 존중한다"(p.5의 1행)고 주장하고 있는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과로서 다수대중들을 동원하는 투쟁의 실천과 권력의 쟁취를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의지의 계급모순에 의한 자본주의 체제 타도의 주장이다.

pp.3-6의 <1. 진보정당이 무엇인가!>의 내용 전체.

3) 민주노동당 서울대 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한 언급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선거를 통한 保守政黨의 혁파와 자본주의의 혁파, 결과로서 노동자가 권력의 핵심이 되는 투쟁의 실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일단 외형의 측면에서는 평등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p.11의 <4. 이제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시다.>)

이는 진보정당의 의미와 해석 그리고 향후 추진의 방향이나, 실제로는 계급모순에 의한 체제부정의 변혁투쟁의 실천에 해당하는 의미이며, 구체적인 투쟁의 실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pp.7-11의<2.민주노동당의 활동/4.이제는 민주노동당과 ..상을 만들시다.>의 내용.

4) 위 주장의 연장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지난 '6.13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방향은 영국과 미국의 모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한국사회의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pp.13-14)라는 전제하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의 투쟁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모아 내자”(p.3의 3행)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투쟁에는 민주노동당이 투쟁의 선봉에서 서자고 주장한다.

이는 계급모순의 관점에서 현재의 김대중정권의 체제를 부정하며, 계부 변혁투쟁에 성공적 실천을 전제하는 내용이다.

pp.12-18의 <노동자 민중이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내용 전체.

pp.19- 26의 <사회적 공공성이 실현된 사회>의 내용 전체.

5)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제국주의 종속이 사라진 사회를 만들겠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김대중정권의 체제까지를 미국에게 정치와 경제가 실질적으로 종속된 사회의 정치체제(p.29)라는 전제의 계부 변혁투쟁의 실천에 해당한다. 여기서 미국의 식민지 운운의 주장은 民族矛盾에 의한 주사파 관점의 투쟁의 논리와는 다르다.

pp.27- 37의 <제국주의 종속이 사라진 사회>의 내용 전체.

6) 본 문건의 후반의 내용의 일부이며, 구체적으로 지역에서의 진보정치의 실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연장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집권을 하면, 진정한 형태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피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권력의 쟁취를 위해서는 지방에서부터 투쟁의 활성화와 조직을 키워야 한다는 관점이다. 결과로서 소수가 존중받는 사회 혹은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선언한다.

이는 사실상의 공산주의 권력의 쟁취와 그 후 한국정치의 실현에 해당한다.

pp.38-42의 <지역에서의 진보정치의 실현>의 내용 전체.

pp.43-53의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라는 제목 이하의 내용 전체.

3. 總 評

<613 지방선거 승리! 민주노동당과 함께하는 서울대 운동본부>라는 외형상 작성자와 발행처 불명의 문건에 대해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進歩를 위장한 계투 변혁전제의 혁명투쟁을 신념으로 하며, 민주노동당 관련의 투쟁의 세부적 실천을 전제하는, '민주노동당과 함께하는 서울대 운동본부'라는 제목에 해당하는 것이 문건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의 내용은 위의 분석에서 언급한바, '민주노동당'의 투쟁의 이념에 입각하여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의 계급모순에 의한 공산투쟁 전제의 변혁투쟁의 실천과 승리를 전제하는 정책의 실시까지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김대중대통령의 한국의 체제와 진보적이라는 노무현후보의 大選路線까지를 정통의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투쟁에 의한 타도와 공산통치의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추구하는 전체 내용의 性格은 PDR계의 <좌익>의 문건이다.

2002 年 10 月 15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6507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 창립총회
- 나. 作 成 者 : 불명 (단 내용상,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
- 다. 發 行 處(日) : 상동 (2002. 10.1)

2. 分 析

가. 기본성격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은 작성자와 발행처가 불명이나, 실제로는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라는 조직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 창립총회>라는 제목하의 문건이다.

단 본 문건의 경우, 외형적 측면에서는 일단 2002년 현재의 시점에서 進步的인 정당을 표방하는 정치단체인 '민주노동당' 산하의 서울대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 조직을 표방하며, 대선에서 선거를 통해 執權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본 문건의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그것의 성격이 다르다. 현재의 한국사회와 자유민주의 정치체제를 대표하는 김대중정권까지를 포함하는 체제부정의 階級矛盾에 입각한 계투 변혁투쟁의 기본원칙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선거를 통한 계투 변혁투쟁의 승리)에 대한 언급의 내용에 해당한다.

본 문건의 후반부에 학생들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계투 변혁투쟁에의 참여를 전제한 투쟁의 실천을 언급하고 있다.

나. 세부분석

1)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 창립총회'의 그동안의 경과와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는 현재의 김대중정권의 체제까지를 거부하는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을 선동하여 투쟁을 강행했으며,'(p.9의 중앙: "○ 5월 서울대..... 집행되었다."), 의정부 미군들의 훈련중 사망한 미선 효순의 문제를 남북한의 통일을 빙자한 민족모순 차원의 반미투쟁에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투쟁을 展開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p.10의 상단: "○ 6월 13일 일어난 결합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라는 것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며, 근본적인 목표는 계투변혁투쟁의 관점임을 알 수 있다.

2) 결과론의 측면에서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라는 단체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노선에 입각하여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는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 조직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언급이다. 현재의 한국사회 대상의 民族矛盾의 투쟁체를 포용하는 계급모순 차원의 변혁투쟁의 실천에 대한 언급의 내용이다.

p.12의 <제2조 (목적)>의 내용 전체.

3)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의 하반기 활동계획에 대한 언급의 내용이다. 변혁적 정치투쟁의 대중을 투쟁집단으로 유입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변혁투쟁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여기서의 하반기 '활동과제와 사업계획'의 내용은 계급모순에 의한 민주노동당의 산하단체의 투쟁의 활성화와 구체화의 내용이다.

pp.19-20의 <□ 안전3호..... 서울대 학위(준) 2002년 하반기 활동계획>의 제목하의 내용 전체.

4)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2002년 말의大選을 맞이하는 투쟁의 활성화를 전제하는 내용이다. 반공에 근거하는 보수세력의 타도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資本主義의 수탈에 대응하는 민주노동당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階級矛盾에 의한 階級變革鬭爭의 승리를 전제하는 투쟁의 구체적 실천의 내용이다.

pp.23-26의 <□ 안전5호/ □ 안전호.>의 내용 전체.

3. 總 評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라는 조직체의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 창립총회>라는 제목하의 문건을 분석했다.

본 문건의 경우 외형의 측면에서는 일단 진보적인 야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 산하의 서울대 대학생 정치 조직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위의 기본성격과 세부분석에서 언급한바, 전혀 그것의 성격이 다르다. 김대중 현재의 정권까지를 포함하는 체제부정의 계급모순에 입각한 계투 변혁투쟁의 基本原則과 그것의 실천에 대한 언급의 내용에 해당한다. 후반부에 이르러 구체적인 변혁투쟁의 실천을 언급하고 있다.

전체는 PDR과 관점의 <좌익>의 문건이다.

2002 年 10 月 15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6611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6.15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한 남북한 관계변화와 미국의 MD정책"

나. 作 成 者 : 오세철 外

다. 發 行 處(日) : 불명

2. 分 析

가. 성 격

本 文 件 은 미 패권주의와 신자유주에 반대하는 '민중적 평화통일, 反資本 계급해방통일을 주장하는 글과 함께,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 轉載 및 현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을 해설한 내용을 담고 있음.

나. 문 제 내 용

1) 남한 민중과 진보진영의 통일노선은 계급적 관점을 우선시키는 이른바 '민중적 통일노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남한의 노동자 민중운동 및 진보진영의 통일노선은 화해·협력을 내세우면서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시장주의적·자유주의적 통일노선'이나 민족주의적 관점을 우선시키는 '자주적 통일노선'과 구분되는, 남북한의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중적 통일노선'이 되어야 한다."(13면)

2) 진보진영은 정권과 자본에 의한 통일운동에 반대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의한 민중적 평화통일정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므로 진보진영의 통일운동은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는 통일운동에 대한 명백한 사상적 조직적 자립성을 견지해야 하며, ... 또한 주한미군 철수, 남한에 대한 북한의 흡수통일반대,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중적 교류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정권과 자본의 통일정책을 넘어서는 민중적 평화통일정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13면)

3) 자본주의체제의 계급대립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민족통일론이 초래한 반자본 투쟁, 반정권 투쟁의 혼란을 비판함.

“...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근본모순인 계급문제를 중심에 놓고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고 그를 변혁시키는 길만이 민족과 계급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길이며 올바른 통일을 이루는 길이다. ... 문제는 어떻게 ...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고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는 인류공동체를 이룩하느냐이다. ... 주체사상의 민족관과 민족통일론이 가세하여 남한통일운동진영을 교란시키고 반자본투쟁, 반제국주의투쟁 그리고 반김대중정권 투쟁의 총체적 변혁투쟁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21면, 오세철, “민족, 계급, 그리고 통일”)

3. 總 評

이상에서는 1) 남한 민중과 진보진영의 통일노선은 계급적 관점을 우선시키는 이른바 '민중적 통일노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2) 정권과 자본에 의한 통일운동에 대해 자립성을 유지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의한 민중적 평화통일 정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 3) 자본주의체제의 계급대립 극복 방안을 모색하며 민족통일론이 초래한 반자본 투쟁, 반정권 투쟁의 혼란을 비판함. 본 문건은 계급적 관점에 기초한 민중적 통일노선과 反資本투쟁, 반정권투쟁을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상 그 궁극적 指向點이 資本主義 자체의 부정에 있는지의 여부는 不分明함. 본 문건은 강한 자본주의 비판 시각에서 매우 진보적 노동운동·통일운동을 전개하려는 反資本 <반정부> 유인물로 판단됨. 끝.

2002 年 10 月 22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6671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회

다. 發 行 處(日) : 위와 같음

2. 分 析

가. 文 件 概 要

1)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회 명의의 유인물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주장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석유와 패권을 위한 전쟁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반미 반전을 주장하고 있는 총 4쪽 분량의 내용임.

나. 細 部 內 容

1)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주장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석유와 패권을 위한 전쟁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음(1-2쪽).

“이번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나.....중략.....미국의 눈에 거슬리는 정권들을 갈아치우고 싶어하는 것이다”

2) 반미 반전을 주장하고 있음(3-4쪽).

“이라크 전쟁은 시작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중략.....시금은 대중적인 반전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4쪽)

3. 總 評

본 문건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주장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석유와 패권을 위한 전쟁일 뿐이라며 반미 반전을 주장하고 있는 등 반미, 반정부적 성향의 비판적 주장인 내용임.

2002 年 10 月 26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6672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지.....
- 나. 作 成 者 : 동아리연합회 외
- 다. 發 行 處(日) : 위와 같음

2. 分 析

가. 文 件 概 要

- 1) 본 문건은 동아리연합회, 임상병리학과학생회, 태멘, 자주선언, 새벽, 민주노동당 연세대학교 학생위원회(준) 공동 명의의 유인물로,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 및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주장을 비판하며, 반미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총 3쪽 분량의 내용임.

나. 細 部 內 容

- 1)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을 통해 반미를 주장하고 있음(1쪽).
“한편 남한에서의 미군 범죄는 전 세계에서 미군이 자행하고 있는.....중략.....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나라의 공적이 되고 있는 나라다”
- 2)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주장을 비판하며, 이에 동조하고 있는 현정부 또한 비난하고 있음(1-3쪽).
“김00정부의 이라크 전쟁 지원 노력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군사비가 아니라 교육과 사회복지를 원한다”
- 3) 반전운동을 위한 전국 대학생 총결기를 주장하고 있음(3쪽).

3. 總 評

본 문건은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을 통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 및 반미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주장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현정부를 비판하며, 반전을 주장하고 있는 등 반미, 반정부적 성향의 비판적 주장인 내용임.

2002 年 10 月 26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6673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강원도 학생위원회 투쟁 사업 및 실천사업
 나. 作 成 者 : 강원도 학생위원회
 다. 發 行 處(日) : 위와 같음

2. 分 析

가. 文 件 概 要

- 1) 본 문건은 강원도 학생위원회 명의의 유인물로, 주한미군 여중생 압사사건과 관련한 반미투쟁 및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반대 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총 2쪽 분량의 내용임.

나. 細 部 內 容

- 1) 주한미군 여중생 압사사건과 관련한 반미투쟁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선전사업과 범국민 추모 문화제 등을 선전하고 있음(1쪽).
 “여중생 범대위와 민주노동당 여중생 대책위에서.....중략.....곳곳에 반드시 부착하자”
- 2)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반대 투쟁을 주장하고 있음(2쪽).
 “학생위원회(준)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반대 활동을.....중략.....적극 앞장설 필요가 있다”
- 3)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쌀시장 개방 반대 농민 대항쟁 투쟁을 선전하고 있음(2쪽).

3. 總 評

본 문건은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과 관련한 반미투쟁을 위한 구체적인 선전사업과 범국민 추모 문화제 등을 선전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반대 투쟁을 비롯하여, 이외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쌀시장 개방 반대 농민 대항쟁 투쟁을 선전하고 있는 등 반미, 반정부적 성향의 비판적 주장인 내용임.

2002 年 10 月 26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6674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미국은 테러리즘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 나라다. "

나. 作 成 者 : 불명

다. 發 行 處(日) : 상동 (불명)

2. 分 析

가. 概 觀

본 문건은 '미국은 테러리즘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유일한 나라다.'라는 제목의 유인물로서,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폭력을 일으켰다는 주장에 강한 동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그 같은 사례로서, 미국은 니카라과의 악명 높은 콘트라 반군을 후원했고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돈으로 자금을 댔다는 등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나. 問 題 內 容 分 析

1)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폭력을 일으켰다는 주장에 강한 동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폭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토록 증오를 받고 있다.' 멕시코의 한 주교가 미국에 대해 한 말이다. 이보다 더 적확하게 현실을 진단한 말이 있을까?"(5쪽)

2) 그 같은 사례로서, 미국은 니카라과의 악명 높은 콘트라 반군을 후원했고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돈으로 자금을 댔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니카라과의 악명 높은 콘트라 반군을 후원했고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돈으로 자금을 댔다.”(3쪽)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폭력을 일으켰다는 주장에 강한 동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2) 그 같은 사례로서, 미국은 니카라과의 악명 높은 콘트라 반군을 후원했고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돈으로 자금을 댔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본 문건은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그 역사적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이와 같이 단순 反美 입장을 표출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제없음' 범주에 속하는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2 年 10 月 25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6688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민중중심 한총련다운 투쟁의 복원을 위하여”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안산한양 학생위원회
 다. 發 行 處(日) : <http://cafe.daum.net/adlpstu>(2002. 9. 30)

2. 分 析

가. 성 격

本 文 件은 경기동부총련과 한총련의 2002년 상반기 투쟁을 평가하고 하반기 민중 생존권 투쟁과 조국통일투쟁에서 한총련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인터넷통신掲載物임.

나. 문 제 내 용

- 1) 美帝와 친미정권의 민중탄압에 대항한 민중투쟁과 한국사회 변혁투쟁에서 한총련이 소극적 실천투쟁을 전개해왔다고 비판함.

“일부동지들이 6.15전선과 대선대연합 운운하고 있을 때 노동자와 농민들은 제국주의와 친미정권의 무차별적 민중탄압에 맞서 연일 투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미국놈들에 대한 제한적이며 우경적인 인식과 유약한 실천투쟁으로 인해 한국 변혁운동은 몇 년간 <한/총/련>이라는 주력군을 잃어왔습니다”(8면)

2) 노동자 농민 대중을 한국사회 反帝力량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한총련이 민중투쟁의 선봉에 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남사회 반제역량의 핵심이랄 수 있는 노동자 농민의 투쟁이 외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총련은 제일 선두에 있어야 합니다. 한총련은 농민들과 노동자 대오를 보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민중들의 폭발적 진출을 돕직하게 보장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대선 논의에서 그토록 강조한 대중투쟁중심의 원칙은 이와 같이, 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투쟁주체로서의 역할을 보장하는데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8-9면)

3) 학생운동의 투쟁성, 계급성, 변혁성을 강조하며 민중투쟁의 강화에 의한 반미자주 통일해방의 실현을 주장함.

“학생운동은 계급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나 또한 젊고 의롭기에 더욱 용맹스럽기도 합니다. 학생운동의 전투성과 계급성은 목적의식적인 노력으로 더욱 강화되고 실천으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혁운동의 맨 앞자리가 우리의 것일 수 있으며, 장장 높은 깃발이 한총련의 것일 수 있습니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 그 분노에 귀와 가슴을 열고, 투쟁의 함성에 동참하고 선도하는 청년학생이 됩시다. ...그리하여 조국의 반미자주 통일해방의 새 날을 한총련의 힘으로 열어젖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10면)

3. 總 評

본 문건에서는

- 1) 美帝와 친미징권의 민중탄압에 대항한 민중투쟁과 한국사회 변혁투쟁에서 한총련이 소극적 실천투쟁을 전개해왔다고 비판하고,
- 2) 노동자 농민 대중을 한국사회 反帝力量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한총련이 민중투쟁의 선봉에 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함.
- 3) 또 학생운동의 투쟁성, 계급성, 변혁성을 강조하며 민중투쟁의 강화에 의한 반미 자주 통일해방의 실현을 주장함.

이상에서는 한국사회가 美帝의 예속하에 있다고 인식하면서 한국사회 변혁과 반미 자주 통일해방을 위한 한총련의 적극적인 민중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바, 본 문건은 북한의 대남통일투쟁노선과 맥락을 같이 하는 친북 <용공> 성향의 유인물로 판단됨. 끝.

2002 年 11 月 19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02-6691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건설의 의의 및 운영에 대하여
 나. 作 成 者 : 불명
 다. 發 行 處(日) : 상동 (단, 작성일의 경우는 내용상, 2002년으로 추정됨)

2. 分 析

가. 기본성격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의 경우는 작성자 불명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건설의 의의 및 운영에 대하여> 라는 제목하의 내용이다.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의 경우 전체의 성향은 2002년 현재의 상태에서 대학생들이 중심이 大選과 관련하여 후보까지를 내고 있는 '민주노동당' 산하의 대학학생위원회 건설하고, 투쟁활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원론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불법의 정치활동의 가담이라는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의 측면이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는 본 문건의 경우는 '민주노동당' 산하의 학생위원회 건설하여 2002년 대선에서 제반정치세력들과 연대하고, 결과로 해서 현재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민족모순에 의한 계투 변혁투쟁의 실천과 투쟁의 승리를 전제하는 내용이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연대투쟁의 계획까지를 상세히 조명하고 있다.

전체의 성격은 현재의 한국사회 대상의 民族矛盾에 계투변혁투쟁의 승리를 전제하는 실천의 내용이다.

나. 세부분석

1) '민주노동당' 산하의 학생위원회 建設의 의의에 대한 언급의 내용이다. 본질적으로 '민주노동당' 산하의 학생위원회의 建設의 목표는 "1) 민족민주전선. 정당의 建設은 한국변혁운동 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p.1의 상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변혁운동 승리 전제의 주장의 경우는, 향후 '민주노동당' 산하의 학생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사회를 민족모순에 의한 계투변혁투쟁의 내개 政黨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pp.1-2의 <1.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建設의 의의> 의 내용 전체.

2) '민주노동당' 산하의 학생위원회 建設의 의의와 원칙에 대한 주장의 내용이다. 제반정치세력들과의 連帶를 통한 투쟁의 승리를 전제하여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장하는 투쟁의 승리는 현재의 한국사회를 민족모순에 의한 계투 변혁투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연대투쟁 운운하고 있는 바, 이는 구체적 투쟁의 승리를 전제하는 투쟁실천의 방법의 내용이다.

pp.2-4의 <2.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建設의 원칙> 하의 내용 전체.

3) 앞서 언급한 '민주노동당' 산하의 학생위원회의 建設과 관련하여, 각 대학 학생위원회의 체계와 운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조국의 자주 통일을 빙자하는 계투 변혁투쟁의 승리를 전제하는 투쟁의 조직 강화의 내용이다.

pp.7-8의 <3. 각 대학 학생위원회의 체계 및 운영>의 내용 전체.

4) 본 문건의 결론에 해당하는 <4. 학생위원회와 대학 내 대중단체와의 관계>(pp.7-8)라는 소 제목하의 내용이다. "자주민주통일과 학원의 자주화 실현을 그 강령으로 하고자 한다"(p.8의 3행)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종적인 목적은 현재의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민족모순에 계투 변혁투쟁의 단체를 만든다는 체제부정의 계투 변혁투쟁의 원칙과 실천에 해당하는 결론의 내용이다.

3. 總 評

작성자 불명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건설의 의의 및 운영에 대하여> 라는 제목 하의 내용을 분석했다.

제목이 시사하는 바, 전체는 현재의 상태에서 민주노동당 관련의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大選과 관련한 후보를 배출한 '민주노동당' 산하의 학생위원회 건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의 경우는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의 불법적 가담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민주노동당' 산하의 학생위원회 건설하여 2002년의 시점에서 제반정치세력들과 연대하여, 현재의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민족모순에 의한 계투 변혁투쟁의 실천과 승리를 전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연대투쟁 운운하고 있는 바, 이는 민족모순에 계투변혁투쟁의 승리를 전제하는 실천의 내용이다.

문건의 성격은 조국의 자주 통일을 빙자하는 민족모순에 의한 계투 변혁투쟁의 승리를 전제하는 투쟁의 실천을 전제하는 포괄적 주사파 <좌익>의 문건으로 판단된다.

2002 年 10 月 25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7124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강원도지부 창당 대의원대회"
-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강원도지부
- 다. 發 行 處(日) : 上同(2002. 5. 4)

2. 分 析

가. 성 격

本 文 件 은 민주노동당 강원도지부 창당 대의원대회 자료집으로서 지구당 창당 경과보고, 규약안, 사업계획 및 예산안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나. 내 용

1) 민주노동당 강원도지부의 조직 목적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는 평등사회 건설을 제시함.

"민주노동당 강원도지부 규약 제2조(목적) 지부는 민주·평등·해방을 실천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강원도 차원에서 실천한다."(5면)

2) 조직 사업으로서 당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선전·교육사업, 민중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 등을 제시함.

“제3조(사업) ... 1. 당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조직, 선전, 교육, 투쟁 등의 제반사업 2.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5면)

3. 總 評

본 문건에서는 1) 민주노동당 강원도지부가 민중 주체의 평등사회 건설을 지향함을 밝히면서 2) 조직 사업으로서 당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선전·교육사업, 민중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상에서는 민중중심 사회 건설에 대한 추상적 규정만이 드러나고 있는 바, 본 문건은 그 내용상 이념적인 문제점을 찾기 어려운 유인물로 판단됨. 끝.

2002 年 11 月 19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02-7187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특보」
 나. 作 成 者 : 권영길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2002. 11.)

2. 分 析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에서 발행한 2면 분량의 유인물로서,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정견과 공약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는 것임. 핵심 내용은 부유세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상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키는 어려운 수준임.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핵심내용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30억 이상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에서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키는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됨.

<이하 여백>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에서 발행한 유인물로서,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정견과 공약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는 것임.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부유세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상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하는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됨.

2002 年 11 月 23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